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⑫ 아미타독존 내영도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쇼호지 소장 고려불화 〈아미타독존내영도〉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극락왕생을 위해 나투신 아미타불을 표현하고 있다.

그 빛 한량없이 시방세계 비추니…

"내 손을 잡아라"라는 듯, 아미타부처님이 왼손을 내밀고 계시다. 왼팔의 길이는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게 과장하였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네 뜻대로"라는 의미의 여원인(如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 "네 뜻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극락왕생할 것이다!"

오른팔은 가슴 정도 높이로 접어 올려 손바닥을 보이는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극락세계가 여기 있다"라며 그 세계를 설법하신다. 죽음의 순간, 꿈에도 그리던 아미타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셨다! 그리고 극락의 풍경을 온몸으로 보여주신다. 원만한 상호, 푸른 나발, 오묘한 빛 광배, 금빛 물결의 법의(法衣), 찬란한 푸른 연꽃. 내 앞에 나투신 부처님 모습에 넋을 잃는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쇼호지(正法寺)에 소장된 고려불화 〈아미타내영도〉

그림②. 아미타부처님의 상호 부분.

日 쇼호지 소장 '아미타내영도'
마지막 순간 아미타 영접 표현
내 앞에 나툰 부처님 모습 감동

임종 순간 나타난 아미타불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인연이 다하여 이제 몸도 흩어지고 거기에 붙어있던 마음도 흩어지는 순간이다. 죽음의 순간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지수화풍이 흩어진다"라고 표현한다. 성성하게 결속하여 활발하게 서로 작용하던 요소들이, 이제 그 인연이 다하여 헐거워지고 삐걱대다가 결국 제각기 뿔뿔이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누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변화무쌍한 흐름을 '무상(無常)'이라고 한다. 무상 · 고 · 무아라는 삼법인의 진리를 모든 존재는 하릴없이 체험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내가 평생을 '내 몸'이라 철썩 같이 믿었던 이 몸뚱아리가 무너지며 해체되는 순간,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아미타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 하는 극락왕생의 해법을 제시한다. 죽음의 공포를 단칼에 불식시키며 찬란히 등장한 부처님. 당장에라도 극락으로 안내하는 그 손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 같은 '내영도(來迎圖)' 형식의 아미타 불화는 지극히 혼란스러웠던 고려후기, 절찬리에 제작되었다. 당시에 너도 나도 원했던 아미타불 내영도. 내영도의 '내영'이란 '맞이하러 오다'라는 뜻으로, 중생의 영가를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 아미타불이 직접 몸을 나투신 모습을 의미한다.

'내영도 형식'의 아미타불 관련 불화는 현존하는 160여 점의 고려불화 중, 무려 47점이나 된다. 미공개 고려불화가 해외 곳곳에 잔여하고 있는 수치까지 감안한다면, 고려불화 전체의 약 40%까지 육박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거의 비슷한 비율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수월관음이겠다. 그래서 고려불화는 수월관음과 아미타불 관련 불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관련 47점의 작품 중에 26점이 '내영도(來迎圖)' 형식이라는 것이다. 과반수가 넘는 작품이 내영도 형식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염불을

우리나라 사찰 어느 법당에 가든 만날 수 있는 대중적 경전이 〈아미타경〉이겠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임종 시에 아미타부처님을 뵙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간결하게 쓰여 있다.

"만약 착한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겨, 하루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혹은 이레를 두고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외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명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투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즉, 일주일 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놓지 않고 지속하여 계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집중을 7일간 계속하면 아미타불을 어김없이 만난다는 왕생법의 요지이다. 하나의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는 사마타(선정, 禪定) 수행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행하면 하얀 빛이 나타나고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 '아미타3부경(〈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공통으로 언급되는 '유리의 땅'이 펼쳐진다. 집중도가 강할수록 이 희한한 빛의 강도와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세어진다. 처음에는 내가 빛을 대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그 빛이 나를 대상으로 하여 나를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만다. 주객이 바뀌어, 빛이 주체가 된다.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이 같은 빛을 만날 수 있지만, 임종 시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임종 시에 하얀 빛이 나타는 경우는 평균 100명에 30명 꼴로 집계된다"고 죽음학 연구학자 최준식 교수는 말하고 있다. 나머지 60%의 영가는 어두운 중음(中陰,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의 터널 속에 바로 갇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업(業)대로 다시 윤회가 시작된다.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無明)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들이고/ 사대육신 흩어지고 업식(業識)만을 가져가니/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무명업장(無明業障)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中)

하지만 임종 시에 빛에 노출된 30%의 영가도 모두가 극락행의 행운을 가질 수는 없다. 그렇기에 위의 인용한 〈아미타경〉의 왕생법 문구에도, 첫 머리에 "만약 착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평생동안 악업보다 선업을 더 많이 지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말이겠다. 인과법이 여지없이 적용된다. 자신이 지은 수행 선업의 용량에 따라, 조금 수행한 사람에게 이 빛은 금방 사라지고 다시 업력이 소용돌이쳐서 말려들게 된다. 많이 수행한 사람에게 빛의 지속은 그 선업의 양만큼 오래가겠다. 물론 상품(上品) 또는 상근기(上根機)의 수행자는 죽는 순간 바로 지체없이 극락세계에 노출되고 무생법인을 깨달아 그 세계에 계속 머문다고 한다. 사마타 수행 끝에 노출되는 이 찬란한 빛을 나옹선사는 '자금광(紫金光)'이라고 표현한다.

"阿彌陀佛在何方(아미타불재하방) 着得心頭切莫忘(착득심두절막망) 念到念窮無念處(염도염궁무념처) 六門常放紫金光(육문상방자금광)"

이는 나옹선사의 유명한 게송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핵심 요지를 담은 내용이다. '아마타불 어디 계신가'로 시작하여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곳에서 나오는 어지러운 번뇌는 제압되고, 찬란한 자금광이 방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 '자금광이 바로 아미타불이다'라는 것이다.

몸체에 표현한 황홀한 극락세계

"사리불아, 왜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아미타부처님이라 부르는지 아는가?"라고 〈아미타경〉에는 그 이유가 설파되어 있다. "그 부처님의 빛(또는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모두 비추고 걸림이 없다.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무량광불(無量光佛)이라고 한다. 곧 아미타부처님이니라. 또 그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이 끝이 없는 아승지겁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 한다. 곧 아미타부처님이니라."

'아미타'는 산스크리트(고대 인도어) 'Amitâbha(아미타바)'와 'Amitâyus(아미타유스)'의 합성어인데, 아미타바는 '무량광(무량한 빛)'을 의미하고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무량한 수명)'를 의미한다. 즉, '영원한 빛이 영원히 계속' 되는 선업의 과보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공덕으로 장엄된 극락세상이 펼쳐진다. 이러한 공덕 장엄의 모습을 〈아미타독존 내영도〉에서는 아미타불의 몸체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약 8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금빛 반짝이는 문양과 홍색과 녹색의 영롱한 바탕색은 그대로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매우 고요한 적멸(寂滅)의 바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찬란하고도 화려한 마이크로의 세계가 펼쳐진다. 붉은 납의(衲衣, 가사 또는 대의)에는 둥근 원 문양이 가득한데, 물 흐르듯 유려한 옷 주름을 따라, 수십 개의 보름달이 넘실대는 듯하다. 개개의 동심원 안에는 무수한 우주의 장엄이 펼쳐진다. 장엄 연기의 파노라마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묵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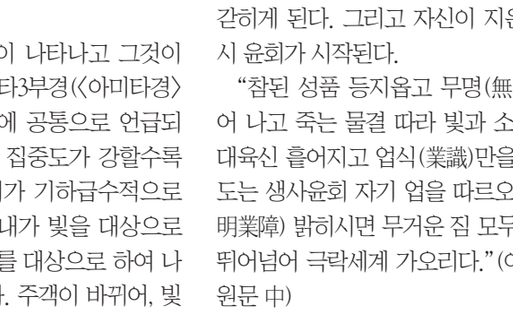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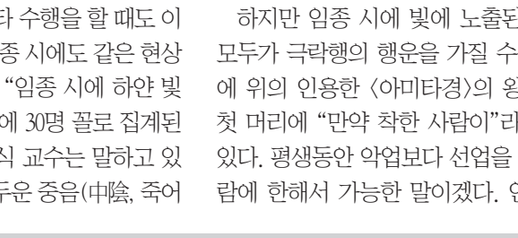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